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9월 2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88 호

"끝없는 수평선, 군함에서 생활하는 해군장병 불자들은 불서를 읽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8월21일 오전 국방부 군승단내에 위치한 군불교진흥회 사무실. 35년간 해병대에 근무하며 전근을 갈때마다 인근부대 해군법당에 합장주와 불서 등을 익명으로 보시해 온 예비역 준위 김양명씨(57)가 불서를 포장하고 있다.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군생활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병영에서 읽는 한권의 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손목의 단주가 위험한 작전에서 생명을 지켜준다는 믿음의 절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씨는 군불교진흥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전방 지역 군법당에 '불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역한 김씨가 군법당과 인연을 맺은 것은 30여년전. 해병대 수시과에 근무할 때 종교 활동을 하고 싶어도 후원의 손길이 미치

장병 포교 30년



지 못해 마음뿐인 해군법당의 현실을 접하고부터다. 이때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그는 매달 봉급의 일부를 떼어내 불교의 명절이나 법당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남몰래 염주와 불서를 보시했다.

30여년간 그가 나눠준 염주만 해도 10만여개. 염주를 풀어 연결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족히 되는 거리다. 김씨는 염주 이외에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등 법회를 볼 때 필요한 경전과 불서도 1만여권이 넘게 법보시 했다.

해룡사, 흑룡사, 해안사 등 김씨의 도움을 받지 않은 해군 법당은 한 곳도 없을 정도다. 또 30여년간 해군을 거쳐간 장병불자들이라면 김씨가 건네준 염주와 불서를 한 번 쯤은 접해 봤을 것이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김씨는 지난해부터 군불교진흥회에서 불서보급을 비롯 합장주 보내기, 위문품 전달 등 군법당 후원운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군불교 발전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치고 싶다는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뿐인 무주상보시를 착실히 실천하며 큰 기쁨을 누리는 참불자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남의 종교 존중하자"

불교·개신교·천주교·민족종교 대화모임 가져
종교갈등 해소 세미나 개최·공익광고 공동추진

제주 원명선원 방화과의 등 잇따라 발생한 해불사건으로 종교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화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 한국종교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중진인사들은 8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종교인 대화모임'을 갖고 종교간 화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후 종교화합을 위한 후속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실장 이길용)이 주선하여 이뤄진 이날 대화모임 후 농관스님과 김상근목사 김성태신부는 발표문을 통해 "21세기를 맞는 중요한 시점에 해불사건 등이 있어 종교간 화합을 위한 대화모임을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그리고 진지한 노력을 함께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이후 종교갈등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종교간 대화모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으나, 해불사건을 계기로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간 화합을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모임에는 불교측에서 조계종총무원 기획실장 재완스님, 사회부장 능관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원혜스님, 전국불교운동연합 대표 지원스님, 개신교측에서 교회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상근목사, 기독교감리회 국내선교부장 박종순 목사, 천주교측에서 김몽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주교회의 일치위원회 총무 김성태신부, 그리고 민족종교협의회 김채윤 사무총장 등 15명의 종교인들이 참석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길용 종무실장과 윤정하 종무관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영화사 유기농매장 "사찰에서 구공해 우리 농산물 싸게 사세요." 서울 영화사(주지 일원)는 8월24일 유기농산물과 환경상품을 판매하는 '한마음' 매장을 개설했다. '한마음' 매장은 실상사농장을 비롯 강원도 호저농협 등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염가로 판매해 영화사 신도들의 복지와 불교도농공동체 사업기금으로 사용된다.

조계종 '본사주지 직선제' 공청회

'보완유지' '폐지' 의견 팽팽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후보자 직선제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완해야하고 폐지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대한 종단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26일 열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가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구본사 주지 직선제의 보완유지와 폐지론이 공방이 맞섰다.

주제발표에 나선 법등스님(종회부의장)은 간선제 도입을 제의했고 이돈문(중앙일보전문위원)씨는 "직선이건 간선이건 본사주지의 선출제도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응스님(전조계종기획실장), 손혁재(참여연대사무처장)씨는 현행법의 보완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법장, 정휴, 장곡, 법성, 해주스님과 홍사성(前 불교TV 제작국장)씨등 6명의 지정토론자들도 직선제의 보완유지와 폐지를 두고 다각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적되거나 제안된 의견들은 7일부터 열리는 제133회 임시종회에 상정할 '신중총회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조계종 내년예산

긴축 불가피

조계종은 25일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문화재관람료 분담금을 비롯한 각종 분담금의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내년 예산의 동결 또는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총무원은 △낭비요소의 최대한 제거와 긴축운영 견지 △신규 혹은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반영 △사회적 불안과 실업 증가에 따른 불교본연의 중생구제활동 모색 등 3가지의 운용원칙 아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중앙 종무기관과 교구본사에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예산편성 지침 등 설명

2일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회의가 2일 오후2시에 열린다.

총무원은 이날회의에서 종단 현안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한다.

또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각 교구본사의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5일

△주 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유아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 체험기행

9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여주 신륵사, 고달사지, 목아박물관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불상을 비롯 회화·공예·민속품 등이 전시돼 있는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에서 하나의 나무가 불상이 되기까지의 제작과정을 알아봅니다.

탑을 구성한 벽돌의 무늬가 수려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다층전탑(보물 제226호)과 남한강가의 바위절벽에 위치한 정자 강월헌(江月軒), 나옹화상의 입적처로 유명한 여주 신륵사와 부도(국보 제4호)를 비롯해 원종대사 혜진탑(보물 제7호) 등 국보급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고달사지도 답사합니다.

9월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
'신륵사·목아박물관·고달사지'

◇출 발: 9월13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점심 제공)
◇안 내: 구본만 화예연구관(여주군청 향토사료관)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봉은사 재정운영 '투명하게' 20면
기도안내서 꾸준히 읽힌다 8면
실직 여성가장에 일자리를 23면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 신국판 | 304쪽
· 값 7,000원



저자 명관지

이 가을, 한권의 책속으로
죽음 기행을 보잔다.
"죽음의 生을 알기 위한 하나의 關門,
죽음을 읽으라! 그러면 삶이 보이리라." 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역사속의 빛나는 인물 100인의 죽음

죽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 세네카와 네로 황제군과 부의외 6인
사라진 사람들 / 밧속으로 사라진 황제의 유해 카이사르와 9인
죽음과 의 악수 / 사약을 독죽한 소크라테스와 공시결 예탈옴과 죽음이 남달랐던 제프과 박종선사
죽음보다는 절저한 삶을 / 니체와 피스칼 토마스 카알라일과 소동피
예술, 그 광기와 죽음 / 정신병을 앓던 모파상, 슈만, 할달란, 뭉크 에드거 알란 포우와 보들레르 까미유 플로델과 나혜석
떠도는 자의 노래 / 김삿갓과 두보 이상과 카프카
화려한 영성, 저장한 최후 / 클레오파트라와 민비 우미인과 양귀비 사도세자와 소현세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 불교의 죽음관 묵련존자와 예가 공초 오상순과 영관선사 마더 테레사 등

※ 여시아문에서도 주문을 받습니다.
Tel : 02-737-0695

도서출판 여시아문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3462-2277 / 팩스: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연지곤지



• 우리옷 •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 단체복 주문시(30인 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50,000원(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명네
● 정밀한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9월10일~11월10일

부처님의 땅 경주 통해 인류문화의 꿈 비춘다



◇석굴암 본존불(사진 위)과 성덕대왕신종의 비천상.





◇공식 마스코트.

세계의 전통과 문화 '한자리 만남'
개막제의 시작은 '에밀레춤'으로
석굴암 부처님 앞에서 세계인 합장
불국사 마당 지구촌 화합 음악공연
48개국 5백만명 동참… '보여주기式' 지양해야

세계의 눈과 귀가 부처님의 땅 경주로 쏠린다.

10일부터 두 달 동안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새 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전승 융화 창조'를 부제로 세계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한곳에 모이는 첫 문화엑스포는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리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 부처님 앞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합장을 하고 고색창연한 불국사 마당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음악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 특히 이번 행사를 여는 개막제의 시작이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의 소리와 '에밀레 춤'으로 시작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행사장과 경주 시내 입구에 즐비한 불교를 상징하는 각종 이미지들도 세계인의 눈과 귀를 끌어 당기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배경에는 불교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주지역 불자들은 이 행사의 주제인 '새 천년의 미소'가 다름아닌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갈등과 대립의 20세기를 접고 화합과 평화의 21세기를 열어 간다는 것이 이 행사의 근본 취지라는 점에서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는 세계인에게 화합과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뿐만아니라 원효스님의 원융화쟁 사상도 종교와 계층간의 차별과 대립을 넘어 인류화합의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엑스포의 주요 정신 배경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씨의 작품도 바로 불교 정신의 결정이다. '백광번뇌'를 주제로 한 백씨의 작품은 크고 작은 108개의 스크린을 통해 인간 고뇌의 근원과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얘기할 때 불교를 빼 놓을 수 없듯이 한국불교를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도시 경주. 이제 경주는 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불교사상이 깃든 우리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무명한 창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조계종은 이번 엑스포에 대한 종단적 관심을 표하고 있다. 전국 교구본사에 이번 행사 참가를 권장하고 있으며 불국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것. 기념행사인 오케라 '원효'의 무대가 설치될 불국사는 영산재와 김영동의 산사음악회 등 특별행사까지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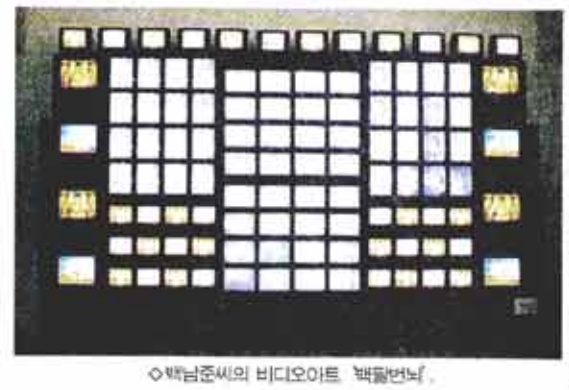
엑스포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도 불교계의 관심 여부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관식 경주시장과 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을 만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구경북지역 스님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조직위원회는 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앞으로도 적년제로 문화엑스포를 개최할 방침이다. 때문에 억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하는 이번 행사는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로 탄생시킨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세계 48개국이 참가해 5백만 관람객이 다녀 갈 것으로 예산되는 거대한 문화잔치에는 살아있는 우리의 진품 문화재 38점을 비롯 이집트, 인더스 문명을 포함한 세계문명의 진품 3백27점도 선보인다.

그러나 경주지역 문화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문화잔치가 자칫 '보여 주기식'으로 흐를 경우 세계문화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설명회에 참가했던 한 스님은 "이번 엑스포가 불교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더 없이 좋은 계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조직위가 준비하는 행사들은 피상적일 수 있다"며 "불교계가 홍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백남준씨의 비디오아트 '백광번뇌'.

◇공식 로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주요행사

◆전야제: 9월 10일 저녁 7시부터 경주시내 전역에서 세계각국의 기면과 엑스포 상징인 수막새 기면 행진, 5개국의 민속공연, 인기가수 공연, 영상쇼,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개막제: 9월 11일 오전 11시부터 행사장내 전승의 마당에서 열린다. 에밀레 종소리와 에밀레 춤, 동자가 \기면에 세 수막새 전달, 집단수 사물놀이패 공연, 놋다리 밟기, 한화춤, 한화기, 구치가 합창등.
◆공연마당: 불국사-오케라 '원효' :9월 18일~20일, 김영동 산사 음악회 11월 초 예정, 영산대제 10월 예정.
엑스포 공연장-사물놀이, 힙합, 재즈, 라틴, 아프리칸 퓨처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류화합음악축제가 매일 '우리는 하나'를 주제로 2회 공연.
◆새천년의 미소관: 백남준 비디오 아트 매일 17회씩 세계 영상 상영등.
◆세계문명관: 세계4대 문명의 발상지와 잉카 마야 한국고대문명 등이 남은 찬란한 문화유물전시.
◆세계풍물공장: 30개국의 생활 문화와 풍물 전시. 전통민예품 전통음식과 의상 시연관매.
◆우정의 집: 일본 중국등 경주시 자매지역의 역사관 설치, 신라인의 지혜관은 석굴암 석방고등을 복한관은 고구려 고분벽화, 공예품, 고구려산성 모형등 전시.
◆국제학술회의: 11월 5일~7일 보문단지내 국제회의장. '문화의 전승과 환경보전' 등 2개분과 학술 발표.

인·터·뷰 경주세계엑스포 조직위원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천년의 미소'로 심는 '세계속의 한국'



"경주문화엑스포는 경주가 간직한 '천년의 미소'를 통하여 '인류의 꿈'을 재현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담고있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문화엑스포가 세계인류를 화합과 평화의 마당으로 안내하는 매개체임을 강조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는 이지사는 "우리 전통문화의 상당부분이 불교문화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지사는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과 외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차기대회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말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 준비에 협조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는 이지사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경험과 자료를 축적한 만큼 두번째 행사때는 유네스코 등의 자문과 고증을 받아 보다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교신자들의 동참에 대한 당부도 잊지않았다.

"악업-악행의 결과 지옥"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⑭



◇확탕지옥. 1710년. 화엄사.

지옥형벌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인간들은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늘 죄를 짓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마련이다. 이때문에 종교에서는 죄를 짓고 지옥에 가면 그 형벌이 어떠한지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그려 놓아 경책으로 삼게하여 올바르고 선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 그림은 계를 파하거나 살생의 악업을 짓거나 산과 들에 불을 질러 많은 생물을 상하게 한 이가 죽으면 펄펄 끓는 물에서 고통을 당하는 확탕지옥의 형벌을 보여주고 있는 불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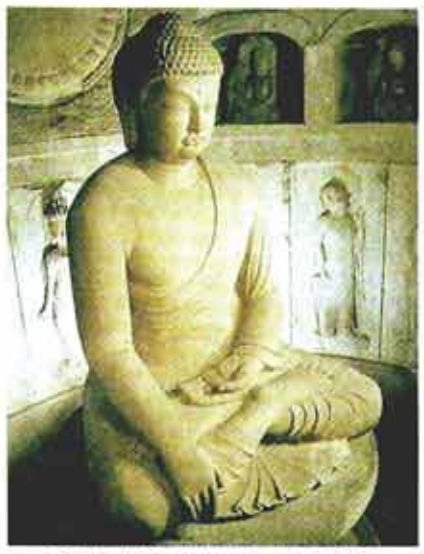
오른쪽 그림 역시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태우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 성화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프라안젤리코作 '유황불 지옥'. 1432년. 산 마르치오성당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진리세계 가리키는 제2의 언어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는 석굴암 본존불.



◇프랑스 국립 기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현존유일의 고려 천수관음보살상.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오른쪽 볼에 살짝 대고있는 손가락이 깊은 상념에 든 미륵보살의 모습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고 있다.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3

손

세계의 공통인사가 서로 손을 맞잡는 악수이다. 손을 활짝 펴고 내보이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평화와 우정과 믿음의 제스추어이다. 소리를 잃은 이들에겐 수화라는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 손주의 아픈 배를 쓰다듬어 주던 할머니의 약손, 정한수를 떠놓고 가족의 무병장수와 복을 간절히 비는 어머니의 손 등 손은 감정, 의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제2의 언어수단이라 할 수 있다.



◇너와 내가 하나임을 상징하여 한마음으로 하는 합장은 공경의 표시이다.



◇차수를 한 채 경내를 이동하고 있는 비구니스님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 있나.' 불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던지는 따끔한 일침이다. 두 손을 마주대는 '합장'은 하나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불자들의 '인사법'이다. 천수관음의 천개의 손은 일체중생의 고통을 헤아리고 어루만져주는 자비심의 표현이다. 붓·보살이 깨달아 얻은 것(內證) 자기의 행세(本誓), 서원 등을 손의 위치나 손가락의 맺음으로 표현한 것이 수인(手印)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은 시무외인이나 선정인,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고 아미타부처님은 구품인을 취하고 있으며 비로자나부처님은 지권인을 취하고 있듯 수인은 불보살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합장

합장은 원래 고대 인도 사람들의 인사법의 하나였다.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에는 인도 사람들의 아홉가지 절하는 방법 중에 불자들은 합장을 경례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합장은 곧 이것과 저것이 하나이고,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고, 선과 악이 하나이며, 너와 내가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다.

《관음의소·纂疏義統》에 의하면 '손이란 본래 두 쪽으로 나뉘져 있는데 그것을 합쳐 하나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산만하고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지극하게 한마음이 되는 것을 표시한 것이며 한마음으로 서로 맞닿는 까닭에 이것으로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합장은 근본으로 돌아가고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방편도 아니고 실상도 아닌, 현실과 진리가 완전히 합치된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까닭에 두 손을 합치는 것이라고 경전에서는 설하고 있다.

■차수

절에 가면 차수(叉手)라 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다녀야 한다. 차수는 두 손을 자연스럽게 마주잡는 것이다.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쥐는 자세가 안락인데 오른손을 왼손으로 쥐어도 상관없다. 오랜 법문을 들을 때나 스님 앞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법당 안 경내를 걸을 때 차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수는 사찰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자세이다.

■천수관음

손은 또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에서 그 불법의 극치를 이룬다. 천수관음은 관음보살의 자비력을 최대한 강조한 모습의 표현이다.

《천수경》에 의하면 천수관음보살은 과거세에서 미래세의 일체중생을 구제한다는 《대비심다라니》를 듣고 천수천안이 생기길 발원했다. 이러한 발원으로 천수천안이 된 관음보살은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보고 천개의 손으로 육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하여 '대비관음'으로도 불렸다.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 사십수진언이 있다. 사십수란 관음보살의 마흔개의 손을 말하는데 감로수(甘露手), 총섭천비수(總攝千臂手)가 더해진 사십이수를 가진 관음은 사십이수관음이라 불린다.

신라 향가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는 천개의 손과 눈으로 중생을 구원하는 관세음보살에게 두 손을 모아 공명을 기구하는 내용이다.

■일지두선(一指頭禪)

'한마디 하시면 방갓을 벗겠소.'

마조선사의 제자 실제스님의 이 물음에 대답을 못한 구지스님은 훗날 천룡화상에게 이 뜻을 묻는다. 물음을 받은 천룡화상은 단번에 손가락 하나를 세워보였고 그순간 스님은 대오각성했다. 이후 구지스님은 도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 하나를 세워보였고 그의 일지두선(一指頭禪)은 선객들 사이에 유명하게 되었다. 구지스님이 세웠던 손가락은 이미 손가락이 아닌 불법에 다름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지이야기는 이로 끝나지 않는다. 후일 스님을 모시는 사미승이 외출했다가 구지스님은 어떤 법을 설하는가는 질문에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였다. 그 상황을 사미승으로부터 들은 스님은 단번에 사미의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아픔에 놀라 도망가던 사미는 스님의 부름에 뒤를 돌아본 순간 다시 손가락을 들어보인 구지스님에 의해 크게 깨우쳤다는 이야기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관음보살 천개의 손으로 중생 돌봐

합 장 모두 돌아닌 근본경지 상징

일지두선 손가락 세워 대오각성 유도

수인

수인(手印)은 손의 위치로 불·보살들이 어떤 상태나 행동에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약속이다.

수인은 모든 불상에 사용되는 통인(通印)과 한 불상에만 쓰는 별인(別印)으로 구별된다. 선정인 여원인 시무외인은 통인, 항마촉지인 초전법륜인 천지인 등은 석가모니불의 별인, 9품인은 아미타불, 지권인은 비로자나불, 약기인은 약사불의 별인이다.

△선정인(禪定印): 참선할 때 짓는 수인. 석가모니부처님이 수도할 때 짓던 손가짐이다.

△여원인(與願印): 중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즉 자비를 베푸는 것을 상징하는 수인이다.

△시무외인(施無畏印):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상징.



◇상품상생인 ◇지권인 ◇설법인

불보살의 깨달음이나 서원 손위치 또는 맺음으로 표현

△설법인(說法印): 중생에게 법을 설하고 있음을 알리는 수인. 손가락으로 만든 동그라미는 법의 바퀴.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지신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지은 수인.

△전법륜인(轉法輪印): 법을 설하고 전도함을 나타내는 수인. 보편적인 전법륜인은 지권인과 유사한 모양이다.

△천지인(天地印): 부처님이 탄생하자마자 일곱 발자국을 떼고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는 모습을 담은 탄생불의 수인.

△아미타정인(阿彌陀定印): 선정인에서 약간 변화된 것으로 두 손을 배 쪽에 가까운 다리 위에 올려 놓고 두 손의 엄지는 끝을 맞대고 다른 손가락은 펴서 서로 깍지낀 모양이다.

△구품인(九品印): 중생을 근기에 따라 아홉가지로 나눠 각자 근기에 맞는 설법을 펼치는 아미타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수인. 상품상생인, 상품중생인, 상품하생인, 중품상생인, 중품중생인, 중품하생인, 하품상생인, 하품중생인, 하품하생인의 아홉가지.

△지권인(智拳印): 비로자나부처님 즉 대일여래의 별인으로 이(理)와 지(智), 중생(衆生)과 불(佛), 미(迷)와 오(悟)가 본래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수인을 통해서 진리를 즉시 깨우치게(卽身成佛) 하려는 것이다.

△약기인(藥器印): 약사부처님의 별인으로 병마를 없애기 위해 약사부처님이 왼손에 약기를 들고 오른손은 무릎에 얹은 모양이다.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괴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첫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로화정
정기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선선(仙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아직 알로 다 할 수 있으리라.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인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산(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林業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정(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와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분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장(腸)·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슬강장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적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 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 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입 문

'마음' 찾는 안내서



■심지통경/혜통스님 지음

내 실체는 무엇이고 삶이란 어떤 것인지 문득 문득 회의가 인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인가.

고민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고민의 핵심 역시 궁극적으로는 '삶과 자기 자신'에 있다. 달마대사는 "불교의 8만4천 법문은 모두 '마음'을 그 근본으로 삼고 있다"고 설했다. 저자 혜통스님은 인생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창조적인 마음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방편으로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한다. 선(禪)수행의 요점과 참선하는 법, 달마조사의 오묘한 해설, 부처님의 교화방법 등을 통해 '마음'을 찾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원문화사 12,000원 (02)704-1626

희망의 메세지 '미륵사상'



■미륵6부경/정의행 역주

미륵사상은 곧 희망이다. 고통스럽고 더러운 이 세상도 안락하고 청정한 세상으로 변화하고 모든 중생이 개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다는 희망의 메세지다.

미륵 6부경은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성불경〉과 구마라집 역본 〈미륵하생성불경〉, 의정 역본 〈미륵하생성불경〉, 〈미륵래시경〉 등으로, 미륵사상의 참뜻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책은 이들 미륵경을 모두 완역하고 역주를 달아 누구나 쉽게 미륵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경전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소제목을 붙여 읽기 편하도록 했으며, 미륵신앙과 그 사상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폈다. 미륵신앙의 참뜻을 널리 알리자는 것이 저자의 의도다.

이바지 6,000원 (062)226-9289

교양 학술

인도 · 인도인의 일상



■내가 알고 싶은 인도/백좌흠 외 지음

이 책은 인도인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의례적 맥락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화합과 반목을 드러내는 또하나의 이야기에 주목한 책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각종 기행문과 사상사적인 책들로 인해 "신비로운 땅"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신비'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이 책이 인도인의 일상생활과 카스트 제도, 근대 역사, 정치·경제 구조와 이데올로기까지를 폭넓게 다룬 것도 균형잡힌 인도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부제 '사람·역사·문화 바로 읽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를 방문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 꼭 읽어보아야 할 교양서. 한길사 10,000원 (02)515-4811

중국조각 양식의 과정



■중국 불교조각사 연구/정예경 지음

중국조각은 광범적이고 회화적인 전통양식에 새로운 형태의 입체적이고 조소적인 양식을 가미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미를 창피웠다. 이 책은 이러한 조각양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를 살핀 학술연구서.

수양식의 본질을 조각 신체의 공간분리, 양감표현, 비례, 자세, 안면표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이 시대의 조각이 중국 조각사상 최초로 인체를 유기적인 구조물로 표현하는데 성공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성립된 3차원적인 조각은 남인도·동남아시아의 조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며, 저자는 그 이유를 회화적이고 선적(線的)인 중국의 오랜 조각전통을 강력한 지렛대로 삼으면서 외래요소를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혜안 15,000원 (02)3141-3711

질서와 법칙의 존재



■사주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백승현 지음

우주에 법칙과 질서가 존재하듯이 인간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것을 잘 알고 다스리면 건강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를 담은 책. 자신의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사주를 통한 사상체질 감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백승현 한국한방역학협회 회장은 사주를 알면 체질을 알아 건강을 진단할 수 있고, 질병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즉 사람의 오장육부는 음양에 따라 선천적인 허와 실을 가지는데 사주를 알면 그 상태를 알아 병증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출판시대 9,500원 (02)3443-4307

기 타

선악의 뒤안길 '풍수'



■풍수로 보는 가문/강영수 지음

어떤 가문에서 정승판서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효자·열부가 나왔는가. 전국을 돌며 취재여행을 한 건 풍수사들중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선과 악이 살아있는 역사 현장 아구만!" 그랬다. 피이하게도 한 가문의 흥망은 '마음자리'에 있음을 풍수사들은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증거는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춘신 열사들의 무덤과는 달리 매국노와 역적들이 봉분은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었음에도 무덤 속은 빌레들의 소굴로 변해 있었다. '인과응보' 바로 그것이었다.

선덕을 쌓은 자가 큰인 땅은 나름대로 생기를 감응시켜 그것을 후대에 전한다. 어떤 자는 생전에 지은 악업으로 후손들을 죽음보다 더한 지옥으로 몰아간다. 그 이유는 바로 땅에 있으며, 이 책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서출판 중명 8,000원 (02)636-6873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베스트

맑고 청빈한 애기 '한폭 수채화'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 스님 지음

평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회주)의 법문이 때로는 거센 물줄기처럼, 때로는 경허히 내리는 싸락눈처럼 녹아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노라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되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갇혀있는 '풍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깨우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깨우침을 류시화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책으로 옮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풋풋한 흙내로 담아냈다. 명동성당 축성 1백주년 기념강연과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식탁에서 들려준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간잔하게 흐른다.

동쪽나라 7,000원 (02)263-1941

참된 삶 이끄는 주옥같은 금언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성우·지현스님 지음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악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써 자신을 살펴 나가라(잡아함경)

〈아함경〉 〈법구경〉 〈선가귀감〉 〈유마경〉 등 경전과 고승들의 어록, 문집에서 이런 주옥같은 금언만을 골라 뽑은 금언집. 참된 삶은 무엇이고 수행 피안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지 등을 주제별로 나눠 묶었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삶의 양식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 번 읽고 그냥 지나치기 보다는 어려울 때 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민족사 5,000원 (02)732-2403

눈밝은 선지식들 화두 수행담



■화두 짓는법/토방편집부 엮음

선은 더이상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근간에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선수행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제대로 화두를 들지 않고서는 올바른 참선수행은 어렵다.

이 책은 역대 눈밝은 선지식들이 어떤 화두를 들고 정진했는가에 대한 글을 모은 것으로 처음 참선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안내서다. 참선의 정의와 함께 성철 청담 만공 한암 용담스님 등 14명 스님의 화두 드는 법과 함구 참선법이 일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참선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생사심(生死心). 그래야만 진정한 의심이 일어난다고 '심(心)'자 한 자에 세상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고도 하는데….

토방 7,000원 (02)722-4588

쟁점 통해 불교사상 흐름 정리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이효걸 외 지음

젊은 불교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담아 논쟁과 비판, 대립과 갈등을 통한 불교철학의 발전사를 보여 주는 연구서.

불교는 인도토속사상과의 논쟁을 비롯해 중국에 들어오면서 도가·유가사상과의 조화와 반목, 한국에 들어와서는 유학과의 반목 등 수많은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대승불교 내에서의 중관학과 유식학의 논쟁을 비롯해 교종과 선종간의 갈등과 조화 등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불교사상의 시대적 흐름이나 특징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불교의 쟁점들'을 통해 불교의 현대적 적용 방향도 모색했다.

예문서원 10,000원 (02)925-5914

구도자가 찾은 깨달음 세계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신규탁 지음

도(道)가 무엇이냐고 묻는 객승에게 조주스님은 말한다. "도란 너의 집 담 너머에 있다." 그래도 못알아듣고 객승은 다시 묻는다. "그런 도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대도(大道)를 여쭌 것입니다"라고. 조주스님의 대답은 냉담하기만 하다. "큰 길은 임금님 사시는 장안에 있다"

용담선사 일화 등 52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 깨달음의 길을 보여준다. 깨달음의 세계. 거기가 바로

도에 미쳐서 도를 찾는 이들을 일깨우는 말이다. 갈 길을 못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저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 그 길에 홀려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한다. 선어록을 읽는 방법도 친절히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고판이라 읽기 쉽고 편안하다.

장경각 5,000원 (02)269-3227

금주의 추천도서

대승불교사상의 진수 - 우리말 번역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반야경/혜탈스님 지음

반야경이란 단 한 개의 경전이 아니라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수많은 경전들의 총칭이다. 이들 수많은 대부(大部)의 반야경들 중에서 가장 일찍 성립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팔천송 반야경〉. 그러나 제대로 된 우리말 번역본이 없어 일반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팔천송 반야경〉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 외에도 독창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팔천송반야경〉 제멋대로 읽기'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감각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고 재독도 이해하기 쉽도록 붙였다.

여기에서는 〈팔천송 반야경〉의 정수로 꼽히는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다뤘다. 제1장에서는 참된 지혜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보살·마하살·대승·공의 의미 등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불생(不生)의 의미 등에 관한 문제까지 탐구했으며, 3장에는 반야바라밀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에 관해 설파되어 있다. 대승불교사상의 진수를 원형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책이다. 출판시대 6,500원 (02)3443-4307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松江企劃

내면의 울림
진리의 法音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ania!



명상명송 · 법문 · 찬불가 · 경전 · 불교음악 · 독경

· 송강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반으로 보급하는데 신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 TEL: (02)745-6015
· FAx: (02)745-6017

협 · 찬 · 사

OMNI RECORD 옴니레코드 불교음반기획제작